"예술가 미래 기대해주세요" 제63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발표회·시상식'이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1부 무용 최고상 작품 발표회, 2부 국악음악 최고상 발표회, 3부 최고상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발표회 최고상 수상자들과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문화관 로비에서는 미술·작품분야 최고상 작품 전시회도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번주 장마 시작…8월엔 불볕더위

내일부터 내달 초 많은 비
강수량 평년과 비슷
9월엔 더위 물러가 선선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장마가 끝나는 다음달 말부터 8월달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불볕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는 25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북상해 26일 오전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에는 장마전선이 북한쪽으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광주, 전남·북, 경남·북)과 제주도에 내리던 비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27일 다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6~27일 남부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80~150㎜로, 지리산 정상 부근은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전남지역에 시작된 이번 장맛비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평년(1981~2010년)보다 3일 정도 늦어진 것이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3일이며, 7월23~24일께 끝나는 등 평균 32일을 지속했다. 평균 강수량은 348.6㎜였다.

기상청의 '광주·전남 3개월 전망'(7~9월)에 따르면 7월 전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이 많겠다. 평균기온은 평년(24.2~25.2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무더위는 8월 들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8월 평균기온은 평년(25.4~26.2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92.2~309.6㎜)보다 비슷하거나 적겠다. 9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평년(21.4~22.2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무더위도 물러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여름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이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간 강수량 차가 매우 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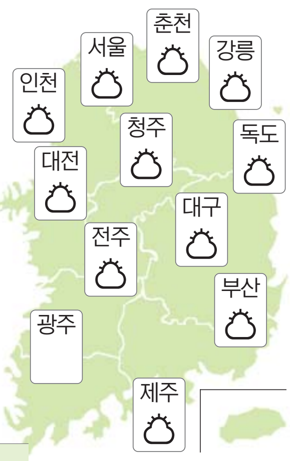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달뜸	17:09
해짐	19:51	달짐	03:14

따가운 햇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21/34	보 성	구름많음	17/30
목 포	구름많음	21/30	순 천	구름많음	21/32
여 수	구름많음	22/29	영 광	구름많음	18/32
나 주	구름많음	18/34	진 도	구름많음	18/30
완 도	구름많음	19/30	전 주	구름많음	20/34
구 례	구름많음	18/33	군 산	구름많음	20/32
강 진	구름많음	18/31	남 원	구름많음	18/33
해 남	구름많음	18/31	흑산도	구름많음	18/26
장 성	구름많음	18/3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남동~남	0.5
	먼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동~남	0.5
	먼바다(동)	남서~서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서)	남동~남	1.0~1.5	남동~남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33	00:11
	17:38	12:11
여수	01:11	07:04
	13:09	19:56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7/1(일)	2(월)
23/29	23/26	23/26	23/28	22/28	23/28	23/28

지방선거 청소년들 표심도 어른과 비슷

모의투표 결과…광주시장 이용섭·전남지사 김영록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표심도 성인 유권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남도교육감은 성인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24일 6·13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춰 진행한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대상 청소년 온라인 ·현장모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광주시장·전남도지사 모의투표에는 각각 931명, 190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광주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65.7% 득표율(601표), 전남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60%(1144표)의 득표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 919명이 참여한 광주시교육감 모의투표는 장휘국 후보 49.7%(457표), 1882명이 참여한 전남도교육감 모의투표에서는 실제 선거에서 3위였던 오인성 후보가 38.6%(727표)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임 광주고검장·지검장 취임 인터뷰

"검찰 제1 사명은 국민 인권 보호"

박균택 광주고검장

박균택(52·사법연수원 21기) 제47대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은 "검찰 제1의 사명은 국민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지난 22일 광주검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인권을 지키고 사건 당사자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사법기관이나 인권옹호기관이라는 인식 대신 수사기관, 인권침해기관, 무소불위기관으로 인식되는 풍토가 안타깝다"며 "특히 검사들이 변호인 면담요청을 회피하고 수사 조사 참여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진다"고 지적했다.

박 고검장은 "인지 건수나 구속 건수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광주고검과 관내 지검, 지청이 국민의 인권과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광주고검차장검사를지내기도 한 박 고검장은 "광주 고·지검에서 3번(검사, 형사 3부장 등)이나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직원들의 우수한 능력과 성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광주 검찰이 더 인권친화적으로 변하고, 구성원 개개인이 발전·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고검장급으로 승진한 박 고검장은 광주 출신이며, 대동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검찰 대전환점…국민 신뢰 쌓기부터"

배성범 광주지검장

배성범(56·사법연수원 23기) 제62대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을 둘러싼 내외 상황이 엄중하다.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지난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권한과 업무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헌법과 형사법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절차를 옹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 본연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이같은 검찰의 이상 달성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업무 현장에서 개개의 사건이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처리됐으며, 충분한 배려와 경청으로 모든 관계인을 납득하게 했는지 등에 있다"며 "국민 시선이 냉엄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작은 일부터 주요 현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화두로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지역 근무는처음이라고 밝힌 배 지검장은 "인권과 문화가 흘러 넘치고, 맛과 멋의 고장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지검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교육청 행정국장에 나종훈 관장

299명 정기인사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나종훈 금호평생교육관장을 본청 행정국장으로 전보하고, 양주승 동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3급으로 승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보임하는 등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승진·전보 등 지방공무원 299명이다. 〈명단 22면〉

승진대상은 총 56명으로 3급 1명, 4급 1명, 교육행정5급 1명, 6급 27명, 7급 26명이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박태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후임으로 양주승 동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3급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김빈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이 4급으로, 최철형 광주중학교 행정실장이 5급으로 각각 승진 임용됐다. /김형호 기자 khh@